

나혜석에 다가가는 몇 갈래 길

-나혜석 성취의 스펙트럼-

이 중 철*

목 차	
I. 시작하는 글	V. 여행가 나혜석, 무엇을 보고 느꼈나
II. 여성운동가, 차별과 금기를 넘어서	VI. 자유주의자, 유태주의자, 세상의 중심에서 자유와 개성을 외치다
III. 화가 나혜석은 무엇을 그렸나	VII. 마치는 글-수원이 잉태한 예술가
IV. 문학가 나혜석, 여성주의 문학의 출발	

국문초록

나혜석은 수원이 낳은 뛰어난 예술가로서, 화가, 문학가, 여성주의자, 여성운동가 등 다방면에서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 여성 운동의 열기가 강하게 불면서 나혜석에 대한 관심과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나혜석에 대한 열기는 일차적으로 그녀가 시대를 앞서간 신여성, 그리고 답답한 시절 억압받는 여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외쳤던 선구적 여성주의자였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다. 최근 불고 있는 나혜석에 대한 관심과 재조명은 주로 여성주의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녀가 한국 여성주의 운동의 선각자라는 위치를 갖기에 일차적으로 그런 열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혜석을 객관적이고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녀의 성취는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요컨대 오늘날 나혜석은 여전히 뜨거운 인물이고, 아직 온전히 알려지지 못했다. 아직도 한국의 많은 이들에게 나혜석은 시대와 불화했던 신여성, 혹은 파격적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먼저 기억되고 있다. 나혜석과 그녀의 성취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 jimmu@hanmail.net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고,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나혜석이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이 있고 완전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 조명되어야 하고 또 새로 발견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나혜석의 여러 성취들을 다각적으로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주제어] 나혜석, 신여성, 여성의 자각, 입체적 연구, 예술가, 수원

I. 시작하는 글

수원이 배출한 여러 역사 인물이 있겠으나, 근·현대에 이르러 예술적, 문화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을 들자면 단연 정월(晶月) 나혜석(羅蕙錫)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 나혜석은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제한적이던 시절, 여러 언론에 소설과 수필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발표한 문학가였으며, 억압받는 한국 여성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한 여성주의자, 여성운동가이기도 했다. 또한 독립운동가, 여행가로서의 나혜석의 모습도 있다. 즉 나혜석의 활동 영역과 그 성취는 상당히 다양하고 방대하며, 동시에 각 영역에서 뛰어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극히 제한적인 시대였기에 그녀의 성취는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하지만 나혜석이 살았던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그녀가 세상을 뜬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녀의 성취에 대한 온당하고 전면적인 평가와 분석은 미약한 실정이다.

한편 나혜석의 고향인 수원시는 약 20여 년 전부터 나혜석을 재평가하고 기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나혜석 생가터를 복원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나혜석의 이름을 딴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해마다 그녀를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나혜석 기념 사업회, 나혜석 학회 등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고, 나혜석 생가 근처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혜석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

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수원을 넘어 나혜석을 재조명하려는 열기가 전국적으로 뜨겁고, 관련 저술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Me Too) 운동 및 페미니즘의 열기 속에서 나혜석이 갖는 선구자적 위치와 상징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불고 있는 나혜석에 대한 관심과 재조명은 주로 여성주의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분명 나혜석은 한국 여성주의 운동의 선각자라는 위치를 갖기에 일차적으로 그런 열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혜석을 객관적이고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녀의 성취는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동시에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경외나 추앙 역시 경계해야 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나혜석의 젊은 시절 재능과 성취, 경력은 무척이나 화려하고 강렬한 데에 비해, 그녀의 말년은 너무나 쓸쓸하고 안타깝다. 생전에도 그녀는 수많은 비판과 편견들과 마주해야 했으며, 그로 인한 시련과 상처도 무척 깊었다. 그러한 굴곡 많고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이 주는 느낌이 너무나 강렬한 탓일까. 혹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나혜석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나혜석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녀는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 인물이고, 아직도 여전히 온전하게 알려지지 못한 것 같다.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나혜석은 시대와 불화한 신여성, 시대를 너무나 앞섰던 인물,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희생된 여성 등으로 먼저 기억되는 것 같다.

필자가 나혜석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고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990년대 초반이었다. 젊은 시절 접한 나혜석의 그림과 글, 그리고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렬했으며, 그녀가 내가 사는 동네에서 태어난 인물이라는 점이 더해져서 커다란 관심과 애정이 솟구쳤다. 상술한 대로 마침 그즈음부터 나혜석에 대한 재조명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지역의 관심을 넘어 문화관광부 차원에서도 나혜석을 문화 인물로 선정하여 널리 알리는 등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오늘날 나혜석은 여전히 뜨겁고 논쟁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경탄과 동시에 연민을 느끼게 하는 인물이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혜석이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이 있고 완전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 조명되어야 하고, 또 계속해서 새로 발견되어야 한다. 요컨대 나혜석 연구는 아직 한참 ‘현재 진행중’인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나혜석이 이룩한 다양한 성취를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각 분야의 성취들이 갖는 의미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둔다.

II. 여성운동가, 차별과 금기를 넘어서

최근 몇 년 한국 사회에서는 소위 미투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고, 이후 그 관심과 열기가 더욱 확대되어 페미니즘 전반으로 옮겨져 뜨겁게 주목받고 있다.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성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있고, 그리하여 한국에서 여성은 늘 사회적 약자였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와 페미니즘에 대한 열기는 많은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최근 들어 뜨겁게 일고 있는 나혜석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맥을 함께 한다. 즉 최근 나혜석에 대한 주목은 무엇보다 그녀가 한국 여성운동의 선각자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페미니즘 역사의 첫머리에 바로 나혜석이 위치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거의 허용되지 않던 시절, 게다가 일제 강점기였던 그 시절에 그림, 문학, 여성 계몽 활동 등 전방위에 걸친 나혜석의 활동은 매우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녀의 말과 글, 행동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본에 유학하여 미술을 배워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가 되고, 소설, 에세이, 논설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발한 글쓰기

를 하였고,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애와 결혼, 그리고 이혼까지 나혜석의 일생은 큰 주목을 받았다.

주지하듯 근대 동아시아에서 ‘여성’은 과거와 다르게 삶의 새로운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신여성’이라는 단어에서 잘 드러나듯이, 각성한 여성들은 견고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외치기 시작했다. 즉 남성에 의해 인생이 결정되는 정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삶을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개척해가는 동시에,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새로운 여성상을 만들어가고자 했다. 나혜석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신구문화가 격돌하는 그 격동의 중심에서 맹렬히 활약했던, 즉 한국의 1세대 여성 운동가, 페미니스트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바, 나혜석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근대적 주체로서의 신여성, 페미니스트 나혜석을 조명하고 분석한 것이 가장 많다. 그리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나혜석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는 아마도 시대와 불화했던, 혹은 능력은 있으나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신여성일 듯 하다. 확실히 나혜석의 삶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아도 놀랄만한 파격적인 면이 많다. 나혜석의 이러한 강렬한 인생 역정은 그 자체가 주체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자각을 키우고 예술가, 문학가로서의 자기 색채와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었다. 다시 말해 나혜석의 삶 자체가 곧 그녀의 예술세계를 채우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주의자, 페미니스트로서의 나혜석의 성취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혜석의 삶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각성한 주체로서의 여성의 목소리가 잘 담겨있는 작품들을 세밀하게 읽어내야 한다. 예컨대 「이상적 부인」, 「이혼 고백장」, 「모던 감상기」, 「인형의 가」, 「여학교를 졸업한 제매에게」 등의 작품에는 여성주의자 나혜석의 주장이 일관되고 강렬하게 담겨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보자.

나혜석이 일본 미술학교에 유학하던 시절 발표한 「이상적 부인」에는 향후 본격적으로 보여줄 여성주의자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¹⁾

남자는 부(夫)요, 부(父)라. 양부현부(良夫賢父)의 교육법은 아직도 듣지 못하였으니, 다만 여자에 한하여 부속물 된 교육주의라. [...] 그러므로 나는 현재에 자기 일신상의 극렬한 욕망으로 영자(影子)도 보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길을 향하여 무한한 고통과 싸우며 지시한 예술에 노력코저 하노라.²⁾

이 글은 가부장적이고 전근대적인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려는 나혜석의 다짐, 나아가 여성들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나혜석의 시 「인형의 가」 역시 여성 운동가 나혜석의 사상과 주장을 상징적으로 작품이다.³⁾ 20세기 초, 전세계 여성들의 자아 각성과 해방의 상징과도 같은 입센 희곡의 주인공 ‘노라’를 불러내 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인 당대의 현실을 극복하고 차별을 넘어 여성으로 당당히 걸어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수하게 엄밀히 막아는 장벽에서 견고히 간헐던 문을 열고 노라를 놓아주게. [...] 나는 안다. 억제할 수 없는 내 마음에서 온통을 다 헐어 맛보이는 진정 사람을 제하고는 내 몸이 값없는 것을. 내 이제 깨도다. 아아 사랑하는 소녀들아. 나를 보아 정성으로 몸을 바쳐다오. 많은 암흑 횡행할지나 다른 날 폭풍우 뒤에 사람은 너와 나.⁴⁾

이렇듯 젊은 날의 나혜석이 서구의 여성해방론 및 여러 근대적 사상에 영향을 받고, 그에 따른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그녀가

-
- 1) 1914년 도쿄 조선 유학생 학우회의 기관지인 학지광 3호에 발표되었다. 공식적인 나혜석의 첫 번째 발표 글이기도 하다.
 - 2) 이상경, 「이상적 부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183쪽.
 - 3) 나혜석은 1921년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을 직접 번역하고 자신의 삽화까지 곁들여 매일신보에 연재했다.
 - 4) 이상경, 「인형의 가」,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114쪽.

일본 유학을 통해 서구의 근대적 미술 교육을 받은 것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나혜석이 직접 겪고 체험한 평탄치 않았던 결혼 생활과 이혼 또한 그녀의 사상과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외에 약 2년에 걸쳐 이루어진 구미 유람의 경험 역시 나혜석의 세계 인식과 나아가 작품 세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혜석은 서구의 여러 근대사상이 활발하게 유입되던 일본에 유학하며 여성해방론을 비롯한 다양한 사상을 접하는 한편, 『세이토』와 같은 일본의 진보적 여성들이 만든 잡지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⁵⁾ 가령 나혜석은 당시에 접한 서구의 페미니즘과 다양한 자유주의 사상, 그리고 학교 안의 다양한 근대적 교육을 통해 여성의 육체에 대해 자각하고 인식하였고, 이를 글과 그림으로 적극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과 냉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 체험한 온갖 불합리한 현실은 나혜석을 여성주의자로 더욱 단련시켰다. 또한 주체적 개인으로서 여러 서구 국가들을 직접 관찰한 나혜석은 자신의 세계관을 더욱 확장시켰다. 예컨대 인격적 주체로서의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중시하는 프랑스 가정의 자녀 교육법에 깊은 인상을 받은 나혜석은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남녀간에 성년이 되면 자기 의사를 당당히 주창하고 또 남자는 돈벌 줄 알며, 여자도 될 수 있으면 자립적으로 살아가며, 그렇지 못하고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과히 간섭치 않는 것이 예입니다.⁶⁾

한국의 1세대 여성주의자로서 나혜석의 선구적 업적을 들어보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나혜석은 변하지 않는 남성 중심의 견고한 사회 안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억압과 금기를 뛰어넘어 새로운 방향과 지표를 제시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성된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정체

5) 『세이토(靑鞮)』는 1911년 일본에서 창간된 여성지로, 당대 일본 여성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잡지였다. 문학 뿐 아니라 미술도 함께 다루었다.

6) 이상경, 「프랑스 가정은 얼마나 다를까」,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267쪽.

성을 실현시켜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삶을 향해 과감하고 강렬하게, 두박두박 나아가며 자신의 예술세계를 완성시켜 나갔다는 점일 것이다.

Ⅲ. 화가 나혜석은 무엇을 그렸나

나혜석의 본령은 문학에 앞서 역시 미술이다.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나혜석,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화가 나혜석의 성취는 무엇인가. 우리가 나혜석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나혜석은 1918년 도쿄 미술 여자학교를 졸업한 뒤 귀국하여 1921년에 서양화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조선미술전람회를 주요 발표 무대로 삼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⁷⁾ 나혜석은 주로 풍경화를 많이 그렸고, 현재 남아있는 작품 대다수 역시 풍경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나혜석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풍경화 작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인상주의 형식으로 보고 있다.⁸⁾

나혜석은 생전 약 300점의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혜석의 그림의 소재는 다양하다. 예컨대 고향인 수원의 산천을 그리기도 하였고, 일본, 유럽,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의 풍경을 그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외국의 풍경을 화폭에 많이 담았다는 것은 화가로서 특히나 두드러지는 부분인데, 이는 당시로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해외 체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7) 나혜석은 1922년 제1회 조선 미전 출품을 시작으로 1933년 11회까지 총 18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8) 마네, 모네와 같은 작가들이 인상주의 풍경화의 대표적 작가이다. 인상주의 회화의 주요 특징은 빛과 색채의 순간적 효과를 이용해 가시적 세계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한 점이다. 인상주의 회화에 대해서는 시모나 바르톨레나(2009)를 참고할 것.

1913년 도쿄 미술학교에서의 유학,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만주에서 산 경험, 1927년부터 1년 9개월간 이어진 구미 여행까지 외국 유학 및 체류 경험은 여러 면에서 화가 나혜석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란 점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작품들이 탄생하게 했다.

따라서 이국의 여러 풍경을 담은 작품을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나혜석의 미술 세계에서 해외의 여러 풍경을 소재로 삼은 작품은 큰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물론 나혜석이 그린 해외의 여러 풍경화들을 두고 한편에서는 서구 지향적이라거나 부르조와적이라는 분석과 비판도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해석일 뿐 나혜석 그림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상술했듯 나혜석 작품의 대다수가 풍경화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 풍경화는 누구나 그릴 수 있는 평범한 소재의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당대의 시대적 맥락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풍경화라는 자체가 집 밖을 나가서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즉 풍경을 그리기 위해서는 외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 이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는 사실상 남자들의 특권이었으니, 바로 이 지점에서 나혜석의 풍경화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⁹⁾ 게다가 그 그림은 국내의 풍경이 아닌 국외, 즉 더욱 넓은 세계를 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미여행 중에 그려진 여러 풍경화들의 경우를 자세하게 살펴보자. 서구의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풍경을 담은 나혜석의 그림 안에는 역설적으로 지구 반대편 조선을 살아가는 여성의 날카로운 시선이 들어

9) 나혜석이 발표한 다양한 장르의 글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활발히 분석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 여성주의자의 선각자로 자리매김한 것에 비해 그녀의 그림에 대한 평가는 단선적이었다. 최근 들어 나혜석의 그림을 여성주의적 시선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김화영(2009), 신지영(2016)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억압적인 고국 조선과 다르게 과감하며 개방적인 서구 여인들의 모습은 분명 나혜석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그녀의 시선을 잡아끌었을 것이다. 예컨대 그림 〈무희〉에는 그러한 시선이 잘 녹아들어 있다. 대담하고 관능적인 파리 댄스홀 무희의 모습에는 그와는 대조적인 고국에 대한 나혜석의 성찰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나혜석이 본인 스스로도 풍경화를 그린 화가로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녀가 풍경화만 그린 것은 물론 아니다. 나혜석의 그림 중 몇 편의 인물화가 있다. 그 중 유명한 것으로 남편 김우영을 그린 작품을 들 수 있고, 또한 나혜석 본인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 있다. 특히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이 자화상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우선 자화상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육체’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하나의 근대적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자화상이라는 것이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일종의 자기의 내면을 표현하고 나아가 심리적 고백을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때, 나혜석의 자화상 역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혜석의 자화상을 살펴보면, 우선 인물의 모습이 서구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양장을 하고 있고 커트머리를 하고 있다. 또한 얼굴이 약간 기울어져 있으며 표정은 다소 어둡고 쓸쓸해 보인다. 나혜석이 이 그림을 그린 시기는 구미 유람을 하던 시기로, 그녀의 인생에 있어 가장 즐겁고 또 예술적으로도 충만했던 시절이었음에도 이런 어둡고 쓸쓸한 느낌으로 자화상을 그렸다는 점은 좀 의외다. 결국 이 자화상 역시도 고국 조선과 그 사회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나혜석의 내면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⁰⁾

나혜석이 그린 누드화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그림의 소재로서 여성의 나체는 남성중심의 폐쇄적인 사회에 저항하는 강렬한 의지로 읽힐 수 있고, 소유와 굴복을 거부하는 자유의 표상으로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10) 김화영(2009)은 나혜석의 자화상이 조선에서 태어난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짊어질 수밖에 없던 당시 조선지식인의 자화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나혜석의 〈나부〉와 같은 회화 작품에는 각성한 주체로서의 여성을 강조하고 금기와 편견을 뛰어넘으려는 의지를 담은 그녀의 여러 글 못지않게 나혜석의 사상과 세계관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증문학자인 필자는 이 지점에서 나혜석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고 여러 모로 공통된 부분이 많은 중국의 여성 화가 판위량(潘玉良)이 떠오른다. 판위량은 어려운 환경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국비 유학생으로 유럽으로 유학, 높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기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 결국 자신의 예술적 포부를 조국에서 펼치지 못하고 중국을 떠나 유럽에서 활동하고 생을 마쳤다. 화가로서 판위량이 즐기치게 추구한 소재가 바로 누드화였는데, 요컨대 그녀에게 여성의 나체는 자신을 옥죄는 편견과 비난을 뿌리치는 자유의 표상이자 남성 중심의 폐쇄적인 중국사회와 시대에 저항하는 강렬한 의지였을 것이다.¹¹⁾

마지막으로 나혜석 그림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술했듯이 그녀의 화풍은 일반적으로 인상주의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본다. 그것은 또한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갖는다. 가령 동경 미술 학교시기부터 세계일주전(1918~1926)까지를 나혜석 회화의 전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그림에는 학교에서 배운 아카데미즘과 인상주의가 절충을 이루고 있다. 이후 유럽과 미국 여행 및 파리 체류시기(1926~1928)는 인상주의의 기초 위에서 야수파와 입체파의 이미지가 발견된다고 보고 있다.

IV. 문학가 나혜석, 여성주의 문학의 출발

최근 한 권의 소설이 한국 사회에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바로 『82

11) 판위량의 드라마틱한 인생역정과 예술세계는 여러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져 많은 중국인들에게 감동과 자극을 주고 있다. 나혜석과 판위량은 여러 부분에서 겹치는데, 여성의 활동이 제한적이던 시절 그림을 통해 여성의 자아 각성, 자유의지 등을 표현한 점에서 그러하다. 둘 간의 본격적인 비교와 세밀한 분석은 독립된 글에서 따로 다루고자 한다.

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인데, 한 여성이 어릴 때부터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한국 사회에서 받은 차별과 억압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 요컨대 이 책은 여전히 견고한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 문제, 변치 않는 한국 사회의 전근대성을 고발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 강하게 불고 있는 이른바 미투 운동의 열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듯 차별받고 억압받는 여성들의 이야기와 그것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를 추적하다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100년 전 나혜석과 만나게 된다. 즉 앞서서도 논했듯이 나혜석은 한국 여성운동의 1세대 선구자, 선각자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여성주의 운동의 열기에 더해 2018년 나혜석 사망 70주기가 맞물려 출판계와 전시계, 공연계에서 나혜석에 관한 다양한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문학가 나혜석에 좀 더 주목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 나혜석은 소설, 시, 에세이, 칼럼, 희곡 등 다양한 문학 장르를 가로지르며 글을 썼다. 요컨대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작가로서의 야망도 대단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나혜석 문학의 출발과 그 핵심은 당연히 여성의 문제였고, 그녀의 문학 세계와 그 성과 역시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

나혜석이 당시의 전근대적인 남성중심 사회에 강한 비판과 함께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대표적인 글로 꼽을 수 있는 글이 바로 「이혼고백장」이다. 때는 1934년, 남편과 이혼한 나혜석은 자신의 순탄치 않았던 결혼 생활과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상세하게 밝히면서 결과 속이 다른 남성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여성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인습과 도덕을 통렬히 비판한다. 이 글은 당시로서는 파격 그 자체였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논란을 야기했으며,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을 들어야 했다.

조선남성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 합니다. [...] 조선의 남성들이야.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말이요. 나는 그대들의 노리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¹²⁾

개인적으로 「이혼고백장」과 함께 나혜석의 여러 글 중에서 특히 인상적인 글이 「인형의 가」라는 시다. 주지하듯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격변기를 보내던 당대의 여러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나라 안팎으로 큰 위기를 겪던 아시아 여러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작품의 주조를 이루는 사회 변혁, 여성 해방, 자아 각성은 아시아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던 나혜석에게도 “아내, 어머니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노래의 외침은 절절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가령 동시기 중국에서도 입센의 작품은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노신, 호적과 같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입센의 작품을 소개, 언급하면서 중국 사회의 구태의연한 관습과 도덕에 강한 비판을 가했다. 장아이링(張愛玲), 쑤칭(蘇青) 같은 당대의 여성 작가들도 노래를 여러 번 언급하며 변혁과 여성 스스로의 각성을 외쳤다.

변치 않는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나혜석의 일생을 관통하는 화두요 예술적 주제였다. 시대적 맥락 위에서 나혜석의 시 『인형의 가』와 그녀의 주장은 오늘날 큰 주목을 받고 있고, 다시 세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12) 이상경, 「이혼고백장」,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391쪽.

아내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 되도다. [...] 남편과 자식들에게 대한 의무같이 내게는 신성한 의무 있네.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사명의 길로 밟아서 사람이 되고저 나는 안다. 억제할 수 없는 내 마음에서 온통을 다 털어 맞보이는 진정 사람을 제하고는 내 몸이 값 없는 것을.¹³⁾

이 시에서 나혜석은 노라가 아버지, 남편의 인형에서 놓여나 한 명의 주체적 인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노라가 해야 할 것은 남편이나 자식에 대한 의무와 똑같이 자신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즉 모든 것이 남성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여성 스스로 주체적 존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색계>의 원작자로 우리에게도 알려진 중국의 여류작가 장아이링도 『인형의 집』과 노라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며 여성들의 주체적 각성을 강조했다. 흥미로운 점은 하지만 동시에 무턱대고 함부로 집을 뛰쳐나가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오히려 가부장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집을 지키고 경제권을 장악하려고 충고하는 지점이다.¹⁴⁾

에세이 「생활 개량에 대한 여자의 부르짖음」 역시 근대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여성도 남성과 다를 바 없이 사적으로도 또 공적으로도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존재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동시에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선 여자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에게 대한 제일 중요한 것을 잃고 살아 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제 숨소리를 들어보시오. 즉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아니, 억

13) 이상경, 「인형의 가」,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114쪽.

14) 장아이링은 산문 『이층으로 올라가라』에서 집나간 노라는 창녀의 길로 접어들기 쉽다고 지적하면서, 가정을 떠나지 말고 그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구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하고 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제 숨소리를 들어보시오. ‘나도 한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이 이상스럽게 전신에 흐르리다.15)

이 글이 특히나 인상적인 점은 결코 남성과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고발이 아니라,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여성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고자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강렬한 주장 못지 않게 올림이 전해지는 글이다. 이러한 글들로 보건데 작가, 즉 다양한 장르를 가로지른 문학가로서의 나혜석의 작품 세계는 공통적이면서도 당연하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 나혜석은 시와 산문 뿐 아니라 소설도 썼다. 『경희』, 『규원』, 『원한』, 『어머니와 딸』이 그것인데, 자전적 느낌이 강하고 공통적으로 모두 여성의 문제와 자각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중 많은 연구자들이 특히 『경희』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 소설은 동경 유학생 경희가 결혼을 둘러싸고 아버지와 대립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아버지로 대표되는 당시의 가부장적 제도에 저항하는 신여성 경희의 내면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여성 자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제집애가 공부는 그렇게 해서 무엇해? 그만치 알았으면 그만이지. 일본은 또 누가 보내기는 하구? 이번에는 무관내지. 기어이 그 혼처하고 해야지. 내일 또 한번 불리다가 아니 듣거든 또 물을 것 없이 꼭 해야지.16)

이 장면은 경희의 아버지가 부인과 함께 경희의 혼사에 대해 말하는 부분으로, 딸의 의견에 상관없이 봉건적 삶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아버지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15) 이상경, 「생활 개량에 대한 여자의 부르짖음」,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252쪽.

16) 이상경, 「경희」,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94쪽.

나 같은 것이 무얼 하나. 남들이 하는 말을 흉내내는 것이 아닌가. 아
아 과연 사람 노릇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 이 사람이 이려는 대
로 저 사람이 저러는 대로, 동풍 부는 대로 서풍 부는 대로 쏘리고 따라
가고 [...] 이것이 사람인가.¹⁷⁾

작가 나혜석은 소설 속 경희의 입을 통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의 자신, 즉 개인의 자각을 역설하고 있다. 다른 이들의 생각을 따르고 수
동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경희의 외침은 여성
스스로의 자각을 강조했던 나혜석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문학가 나혜석의 작품 세계를 요약해보자면, 소설, 산문, 시 등 다양한
장르를 가로지르며 다양하고 다층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우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자신의 사상과 세계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1
인칭의 언어’를 구사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견고하고
봉건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늘 자신의 이름을 갖지 못한 채 남
성에 종속된 삶을 살았다. 이에 여성 스스로의 각성과 해방에 나서기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갖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는 바로 이 1인칭의 언어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
이 매우 중요했고, 나혜석 역시 그것을 통해 여성 스스로의 각성과 해방의
필요성을 다층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또한 나혜석은 기존의 남성 중심의
담론 체계를 거부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통해 여성주의 문학의
가능성을 열어젖힌 동시에, 한 명의 작가이자 예술가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갔다는 점을 중요한 문학적 성취로 꼽을 수 있을 것
이다.

17) 이상경, 「경희」,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100쪽.

V. 여행가 나혜석, 무엇을 보고 느꼈나

최근 나온 여러 나혜석 관련 논저 중 나혜석의 여행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들이 있어 눈길이 간다.¹⁸⁾ 그 어렵던 시절, 더구나 여성의 사회 활동이 제한을 받던 그 시절에 여성의 몸으로 세계 여행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나혜석의 인생은 확실히 특별한 부분이 많다. 이 특별한 세계 여행은 일본 유학 경험과 함께 인간 나혜석과 예술가 나혜석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즉 여성이라는 성별이나 복잡한 당대의 시대 배경을 떠나 화가이자 작가인 한 예술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고 접하는 여행은 커다란 영향을 주는 체험이었을 것이다. 나혜석이 그 구미 여행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또한 그것이 그녀의 작품 세계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따라가는 일은 그러므로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며, 나혜석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다.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물에 대한 근대 엘리트 조선인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기도 할 것이다.

나혜석의 구미 여행기는 요컨대 다양한 시선과 담론의 틀을 제시할 수 있는 입체적인 텍스트다. 예를 들어 그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 여성의 근대적 주체 의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서구와 일본에 대한 관찰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혹은 여러 개인적 욕망과 민족의식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 등등 나혜석의 여행기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혜석의 구미 여행기는 주로 잡지 『삼천리』에 발표되었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의 여행기는 식민지 조선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서구 대도시의 여러 면모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나혜석의 주체적 시선을 동시에 드러내 주고 있기에 대단히 흥미로운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나혜석의 외국 체험은 그녀의 세계관 형성 및 이후의 작품

18) 『꽃의 파리행: 조선여자, 나혜석의 구미유람기』, 『조선여성 첫 세계일주기』 같은 책들이 대표적이며, 나혜석이 남긴 여행기 및 관련 글들을 모아놓고 있다.

세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시의 산책과 여행이 남성들의 특권으로 여겨지던 당시, 나혜석의 구미 여행기는 여성이 주체가 된 대표적인 여성 산책자, 혹은 도시 관찰자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우선, 다음과 같은 글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고 낭만적으로 서구 대도시의 생활을 향유하는 나혜석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구미 만유기 1년 8개월간의 나의 생활은 이리하였다. 단발을 하고 양복을 입고, 빵이나 차를 먹고 침대에서 자고 스케치 박스를 들고 연구소(아카데미)를 다니고, 책상에서 프랑스말 단자를 외우고, 때로는 사랑의 꿈도 꾸어보고 장차 그림 대가가 될 공상도 해 보았다. 흥 나면 춤도 추어보고 시간 있으면 연극장에도 갔다. 왕전하와 각국 대신의 연회석상에도 참가해 보고 혁명가도 찾아보고, 여자 참정권론자도 만나 보았다. 프랑스 가정의 가족도 되어 보았다. 그 기분은 여성이요, 학생이요, 처녀로 서이었다. 실상 조선여성으로서는 누리지 못할 경제상으로도나 기분상 아무 장애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태평양을 건너는 배속에서조차 매우 유쾌히 지냈다.¹⁹⁾

또 한편으로는 근대화된 서구 가정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고국 조선과 비교하는 동시에, 문명이 발전된 유럽의 문화적 수도라 할 파리의 여성의 현실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을 세밀하게 적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종류 상류의 점잖은 집안은 주인남자가 내정에 간섭치 않는 것은 상례이다. 이 집도 그러하여 주부의 권위가 절대로 있다. 아 들들을 어머니가 꾸짖으면 남편은 슬슬 꾸짖으며 말린다. 이 집 부인은 열렬한 여권주장자요, 잡지에 기고를 많이 하는 만큼 늘 독서를 하고 있다. 날마다 하는 일은 아침마다 가족에게 밥주기와 편물, 재봉, 교우이

19) 이상경, 「아아 자유의 파리가 그리워-구미 유람하고 온 후의 나」,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322쪽.

다. 자식을 많이 기르고 살림살이를 오래한 만큼 때대로 큰소리가 날 때도 있다. 이는 동서양 여자를 물론하고 사람의 진을 빼는 살림살이를 겪은 여성에게는 면치 못할 사실인가 한다.²⁰⁾

결국 나혜석이 잡지 『삼천리』에 발표한 다양한 구미 여행기는 남성들의 시선에 갇힌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당당한 시선의 주체로서의 여성이 기록한 거의 독보적인 대도시 관찰기라고 할 수 있다. 나혜석의 여행기, 혹은 서구 관찰기는 재미도 물론 있었고 만만찮은 깊이도 있었다. 나혜석은 발달된 서구의 도시들과 문물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것을 고국의 그것과 비교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둘을 주변과 중심, 혹은 선진과 낙후 등과 같은 이분법적, 혹은 대조적인 사고를 한 건 결코 아니었다.²¹⁾ 즉 일본 유학과 구미 여행은 나혜석의 시선과 세계관을 확장시켰고,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했다. 국경을 넘는 이국으로의 여행은 공간 뿐 아니라 문화의 경계를 넘어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한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은 물론이고 비교를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나혜석은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화폭에 담았고 글을 써서 계속 발표했다.

VI. 자유주의자, 유티주의자, 세상의 중심에서 자유와 개성을 외치다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부분은 자유주의자, 유티주의자, 혹은 개인주의자로서의 나혜석이다. 실상 나혜석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당시의 여성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편견과 차별, 그리고 식민지라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20) 이상경, 「프랑스 가정은 얼마나 다를까」,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298쪽.

21) 손유경(2008)은 나혜석의 구미 만유기와 각종 회고류의 글에는 각 도시를 내부로부터 파악하고 자신의 선 자리 자체를 성찰하려는 시선이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나혜석의 산책자는 자신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자기화’하려는 열정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녀의 평범치 않은 성장 배경과 유학 경험, 귀국하여 당대를 대표하는 신여성으로 적극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 그에 더해 파란만장한 그녀의 결혼 생활과 이혼 등의 과정을 충실히 살펴야 한다. 이는 나혜석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도 또한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역설적으로 나혜석에 걸쳐 있는 이러한 여러 사회적, 시대적 배경과 주변적 요소들이 동시에 나혜석이라는 한 인간, 예술가에게 온전히 다가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요컨대 그녀를 둘러싼 여러 배경들을 걷어내고 한 명의 예술가, 맨얼굴의 인간 나혜석에 집중을 해보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자 하는, 그리고 오롯이 자신이 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나혜석의 모습이 보인다. 또한 사랑과 낭만을 갈구하고 아름다움을 찾아 헤매는 낭만주의자, 혹은 유희주의자의 모습도 보인다. 사실 많은 이들에게 나혜석하면 즉각적으로 시대의 편견과 차별과 맞서 싸우는 투사, 여성 스스로의 자각과 개성을 외치는 한국 여성 운동의 선각자, 혹은 시대와 불화했던 신여성 등등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물론 그것은 나혜석이라는 이름의 근간이 되는 강렬한 부분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나혜석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나혜석에 붙여지는 여러 수식들을 좀 걷어내고 보면, 그곳에는 또한 온전한 자유를 갈망하고, 사랑에 목숨 거는 낭만주의자, 모든 대가를 치루고 서라도 불멸의 예술품을 창조하고자 욕망했던 예술가의 초상이 어른거린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나혜석 예술의 원천은 ‘결핍’일 수 있다. 아니 나혜석 뿐 아니라 많은 위대한 예술가의 탄생 배경에는 필연적으로 결핍이나 좌절, 슬픔 같은 것들이 있다. 혹자는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렵던 시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해외 유학을 하고, 세상이 떠들썩했던 연애를 하고, 화가로, 작가로 유명세를 타고, 또 세계여행까지 다녀온 나혜석을 두고 무슨 결핍을 말하느냐고.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나혜석은 시대의 벽에, 그리고 낡은 인습과 편견에 계속해서 부딪혔고 좌절하였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좌절과 결핍 속에서 나혜석은 온 힘을 다해 사랑했고 또 욕망하였

다. 거침없이 자유와 개성, 낭만과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가령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나 사랑했던 시인 최승구와의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구미 여행에서 만난 최린과의 관계 등을 보면 나혜석은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욕망에 충실했다는 점 등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당대로서는 나혜석의 그런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나혜석은 커다란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배경과 사람들의 지탄을 거론하기에 앞서 예술가로서 나혜석을 한번 바라보자. 자신에게 청혼한 김우영에게 결혼의 조건을 제시하고, 옛 연인 최승구의 무덤에 함께 가자고 말하는 나혜석에게서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고 낭만에 목숨 거는 개인주의자, 혹은 낭만주의자의 모습이 짙게 보인다. 말년에 이르러 재기도 거의 불가능해지고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처한 나혜석은 젊은 날 그녀를 사로잡았던 파리로 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외친다.

가자 파리로. 살너 가지 말고 죽으러 가자. 나를 죽인 곳은 파리다.
나를 정말 여성으로 만드려 준 곳도 파리다. 나는 파리가 죽으란다. 차
질 것도 맛날 것도 엿을 것도 없다. 도라올 것도 없다. 영구히 가자. 파
거와 현재가 공인 나는 미래로 나가자.²²⁾

다음의 글은 구미 유람을 마치고 고국 조선으로 돌아온 뒤의 심정을 담고 있다. 요컨대 다시 현실로 돌아와 실존적인 고민에 휩싸임과 동시에 다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훨훨 비상하고 싶은 욕망이 동시에 보인다.

생활 정도를 낮추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것 같다. 이상을 품고 그것을 실현 못하는 것처럼 비애스러운 것이 없는 것 같다. 내 의사를 죽여 남의 의사를 좇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이 없는 것 같다. […] 조

22) 나혜석, 「신생활에 들면서」, 『삼천리』, 7권 2호, 1935, 80쪽.

선 오니 길에 먼지가 뒤집어 씌우는 것이 자못 불쾌하였고 송이버섯 같은 납작한 집 속에서 울려 나오는 다듬이 소리는 처량하였고 흰 옷을 입고 시름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불쌍하였다. 이와 같이 활짝 피었던 꽃이 떨어지듯 푸근하고 늘씬하던 기분은 전후좌우로 바싹바싹 오그라들기 시작하였다…아아, 자유, 평등, 박애의 세상, 파리가 그리워…²³⁾

이처럼 자신을 옥죄는 답답하고 절망적 현실을 떠나 파리로 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외치는 나혜석의 모습 속에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의식을 가진 예술가의 모습이 참으로 짙게 드러난다. 예나 지금이나 파리는 유럽의 문화적 수도이자 낭만의 도시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 아닌가. 젊은 날의 그녀를 매혹시키고 충만감을 안겨주었던 그 곳 파리를 갈망하는 한 예술가의 내면이 그대로 절절하게 드러난다.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 나혜석이 일생 동안 여러 차례 마주했던 결핍과 좌절, 슬픔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예술을 배태시킨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나혜석은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발목 잡는 현실에 대한 돌파구로 예술의 길을 걸어갔을 것이다. 다소 거칠게 이야기해서 소위 등 따습고 배부르면 예술이 되겠는가?

또한 나혜석이 시인 김동환에 보낸 엽서를 보면, 고향 수원을 두고 가는 곳마다 그림을 그릴 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화성이 로마성 보다 더 로맨틱하다고 표현한 구절이 나온다. 많은 예술가에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수많은 예술적 영감을 일으키게 하는 공간일 것이다. 나혜석이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수원의 산과 호수, 그리고 성곽을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로마보다 낭만적이라고 표현한 것에도 낭만주의자, 유태주의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요컨대 나혜석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조선의 1세대 여성주의자, 당대 여성운동을 주도한 선각자로서의 면면과 더불어 낭만주의자, 개인주의자, 유태주의자로서의 모습도 함께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

23) 이상경, 「아아 자유의 파리가 그리워-구미 유람하고 온 후의 나」,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323쪽.

다. 일견 이 두 부분은 대립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리하여 이분법적으로 이해될 오해도 있지만, 분명 나혜석이라는 예술가에게 공존하는 여러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퍼즐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나혜석의 출신 배경, 고향, 기질, 그리고 유학과 여행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해외체험 등을 세밀하게 짚어가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I. 마치는 글-수원이 잉태한 예술가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은 역시 수원 화성(華城)이다. 한국 성곽의 아름다움과 높은 기술력, 그리고 정조의 효심이 깃든 화성은 수원의 자랑이자, 수원의 정신과 문화를 대표한다. 다시 말해 수원은 수준 높은 인문 환경이 갖추어진 곳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수원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바로 옆에 둔 화서동에서 40년 넘게 살고 있기에 화성과 그와 관련된 여러 문화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친근하다. 정조에 의해 축성된 수원 화성은 백성을 두루 사랑하고 부모에 대한 효가 깊기로 유명한 그의 정신이 잘 투영되어 있다. 수원을 효원의 도시라고 부르는 것 역시 그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화성 성곽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성곽의 안팎을 일상적으로 넘나들면서 수원 곳곳에 스며든 역사와 인문 정신을 체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원은 그 이름의 의미(水原)처럼 물이 많은 도시다. 우선 수원 시내를 관통하는 수원천이 있다. 수원천은 화성의 안쪽을 가로지르며 흐르면서 사람과 자연을 키워내고 있다. 또한 방화수류정, 화홍문 등은 성곽과 물이 어우러져 멋진 풍광을 완성하고 있다. 두 번째로 수원에는 호수가 많다. 수원을 대표하는 산인 광교산에서 발원한 광고 호수를 비롯하여 그 아름다움으로 명성이 높은 서호, 원천 호수, 일월 저수지, 만석 공원 호수 등 곳곳에 호수가 많다.

이처럼 아름다운 성곽과 그에 담긴 정신, 그리고 산과 호수, 시내가 함께 어우러지며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지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풍경을 간직할 수 원이니, 필연적으로 뛰어난 예술가를 잉태시키고 키워낼 만한 곳이라 하겠다. 바로 나혜석이 이에 응답한 인물이다. 이처럼 수원은 뛰어난 화가이자 문인이며, 동시에 시대를 앞서간 신여성, 그리고 답답한 시절 억압받는 여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외쳤던 여성주의자인 나혜석을 배태하고 성장시켰다.

나혜석이 태어난 곳 역시 화성의 화서문 바로 안쪽에 위치한 행궁동, 혹은 신평동으로 불리는 곳이다. 이곳은 팔달산의 기슭이면서 근처에는 행궁과 화서문이 자리 잡고 있어 인문의 향기가 짙고 멋진 풍경을 지닌 곳이다. 나혜석은 이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자신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웠을 것이다. 즉 수원의 아름다운 산천과 뛰어난 문화유적, 인문적 환경은 나혜석에게 많은 예술적 영감과 소재를 제공했을 것이다.

나혜석의 그림 중에 수원의 풍경을 담은 그림이 몇 점 있다. 수원 8경 중 하나로 꼽히는 아름다운 호수 서호를 화폭에 담았고, 물이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화홍문을 그리기도 했다. 또한 어느 호수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원의 한 호숫가의 풍경을 멋지게 담은 그림도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나혜석은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그녀가 나고 자란 고향 수원이었을 것이다.

나혜석은 그 어렵던 시절, 더구나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거의 제한되던 그 시절에 동경 유학을 하고, 또 2년 가까이 세계 곳곳을 여행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당시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경험이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나혜석에 대한 많은 분석들이 이러한 배경에 주목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그에 더해 나혜석의 고향 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문적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이 나혜석의 내면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얼핏 나혜석의 세계관이 견고한 남성 중심사회에 대한 강렬한 비판과 저항으로 일관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게만 볼 수 없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나혜석의 내면을 채우는 여러 요소 중에는

자유주의, 개인주의 및 낭만주의, 자유연애 등과 휴머니즘, 심미주의 등등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바탕, 원형에는 아름다운 고향 수원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 나혜석은 여전히 뜨거운 인물이고, 아직 온전히 알려지지 못했다.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경탄과 동시에 연민을 느끼게 하는 인물이고, 아직도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 있는 인물이다. 또한 한편에서는 앞뒤 재지 않고 다소 맹목적으로 추앙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요컨대 나혜석은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전면적으로 발견되지 못했다.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고 객관적으로 봐야 할 지점도 많다. 분명한 것은 나혜석 성취의 스펙트럼은 실로 넓고 깊다는 점이다. 최근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적지 않은 연구 성과들이 쌓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고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나혜석은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 조명되어야 하고 새로 발견되어야 한다. 최근 여성 운동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한국 여성 운동의 대표적인 선각자로 지목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나혜석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다방면으로 펼쳐진 나혜석의 재능과 성취는 동시대 어느 나라 어느 누구와 견줘도 떨어지지 않는,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한국의 많은 이들에게 나혜석은 시대와 불화했던 신여성, 혹은 파격적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먼저 기억되는지 모르겠다. 나혜석이 남긴 뛰어난 성취와 시대정신은 이제 보다 온전하고 객관적이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연구되고 알려져야 하며, 그 역할은 우리 후배들의 몫일 것이다.

나혜석의 고향인 수원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나혜석 문화제 등이 있지만,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규모로 키워야 한다. 또한 좀 더 세분화하여 그림, 문학, 여성주의 등 각 분야에서 나혜석을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는 행사를 다각

적이고 유기적으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나아가 동시기에 활동했던 세계 속 여러 인물들과도 연계해서 함께 재조명되는 기회를 가지면 나혜석 연구에 대한 깊이와 폭이 훨씬 넓어질 것이다. 예컨대 동시기 중국에도 누드화를 그려 폐쇄적인 중국 사회와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항거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한 판위량(潘玉良)이라는 화가가 있다. 나혜석도 많은 누드화를 그려 시대의 금기에 도전한 바 있다. 판위량과 나혜석을 비교, 검토하면 주목할 만한 여러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듯 나혜석에 대해 새롭게 조명할 부분은 너무나 많다. 차차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또한 꼭 수원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참고문헌

- 김경민, 「근대인 나혜석의 경험과 사상」, 『한민족문학』, 제79집, 2018.
- 김화영, 「나혜석의 『자화상』과 ‘조선’-일본과 서양의 여성화가의 자화상의 비교를 통하여」, 『일본근대학연구』, 제24집, 2009.
- 나혜석, 「신생활에 들면서」, 『삼천리』, 7권 2호, 1935.
- 김미영, 『1920년대 여성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3.
- 백신애 · 이선희, 『신여성, 운명과 선택』, 에오스, 2019.
- 서영인, 「지역문화유산의 현대적 재구성-수원지역 나혜석 문학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제69호, 2016.
- 서재원, 「나혜석 문학 연구-근대적 여성주체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5권, 2005.
- 손유경, 「나혜석의 구미 만유기에 나타난 여성 산책자의 시선과 지리적 상상력」, 『민족문화사연구』, 36권, 2008.
- 시모나 바르톨레나, 『인상주의 화가의 삶과 그림』, 강성인 역, 마로니에 북스, 2009.
- 신지영, 「여행과 공간의 성의 정치화를 통해서 본 나혜석의 풍경화」, 『여성 과 역사』, 제11집, 2016.
- 이구열, 『에미는 선각자였느니라』, 동화출판공사, 1974.
- 이상경,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 장애령, 『올드 상해의 추억』, 이종철 역, 학교방, 2011.
- 최동호·서정자, 『나혜석, 한국 문화사를 거닐다』, 푸른사상, 2015.
- 최정아, 「동아시아 문학과 여성-나혜석, 요사노 아키키, 장아이링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72권 제1호, 2015.
-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Abstract

Several Paths to the Achievement of Rha Hye-seok

Lee, Jongcheol(Yonsei University)

Rah Hye-seok is the most well represented artist in suwon. She is also a painter, writer, and feminist. Rah Hye-seok has started attract attentions from many people and a lot of research on her has been conducted as the feminism movement has gotten active recently.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achivement of Rah Hye-seok, it ls necessary to approach in various dimensions. In this study, I have tried to analyze Rah Hye-seok's achievement objectively through five aspects.

[Key Words] New woman, femail consciousness, feminism, artist, suwon

접 수 일 : 2022년 02월 14일
심사완료 : 2022년 03월 11일
게재결정 : 2022년 03월 12일